

제 1 교시

수능특강 독서 2부 인문·예술 평가원화

#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운명적인 실화거나 동화 속 이야기거나**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오르비 섹시스타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18p)

구조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쉬르는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언어를 ㉠ 랑그와 ㉡ 파롤로 구분하였다. 랑그는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다. 그는 랑그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적 약속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화자는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랑그에 따라 발화할 뿐 혼자서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 파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로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랑그와 달리 쉽게 변화한다. 가령 동일한 언어 규칙을 바탕으로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사람마다 발화의 형태, 모습은 모두 다르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개인의 발화가 파롤인 것이다. 소쉬르는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파롤은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 언어 활동이 아닌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할 대상은 파롤이 아니라 랑그라고 주장하였다.

랑그는 수많은 기호로 구성된다. 소쉬르는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라고 보았다. 그는 기호를 구성하는 개념과 청각 이미지를 각각 기의와 기표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즉 기호는 기의와 기표의 연합체인 것이다. ㉢ 소쉬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현실 세계에 실재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사고를 통해 실재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표를 만들어서 개념과 결합시켰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쉬르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명확한 기의가 없으므로 인간이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사유를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말이 없다면 현재 사과라고 여겨지는 과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기표와 연결되는 기의는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기의는 연결된 기표와 다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정해질 뿐이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된 기의는 사과의 본질이 아니라 과일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표, 즉 배, 감, 귤 등이 아닌 과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 사과라는 기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언어 구조 안에서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소쉬르는 이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는 ‘나방’과 ‘나비’가 각기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로 존재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두 가지 곤충을 모두 ‘파피용’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가 ‘나방과 나비가 한 마리씩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때, 둘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프랑스어를 쓰는 화자는 ‘파피용이 두

마리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쉬르는 대상이 나타내는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하며,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이러한 언어의 구조에 담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소쉬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언어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학문인 구조주의 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적용하였다. 모든 음소들은 ‘비음인가 아닌가’, ‘모음인가 자음인가’와 같이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을 통해 분류된다. 레비스트로스는 음운론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이항 대립을 바탕으로 각 집단이 갖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는 친족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의 형제라는 네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이항 대립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둘 중 하나만 친밀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아내와 아내의 형제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항 대립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멜라네시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친밀하지만 외삼촌과 조카는 심하게 대립하고, 트로브리안드 섬에서는 부부 사이는 친밀하고 개방적이지만 아내와 아내의 형제 사이는 좋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회 집단이 이러한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집단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각 사회는 친족 사이에 키워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있고, 집단에 속한 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감정을 내재화한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감정이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서의 ‘역할 연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레비스트로스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등의 대립쌍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였다. 그는 언어를 문화의 조건으로 보고 언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는데, 음성 언어를 순수한 것으로, 문자 언어를 저열한 것으로 보고 문자 언어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유럽인에게 문자를 배운 브라질의 남비파라족이 문자 사용 수준으로 사람들의 위계를 정하는 것을 발견하고, 문자가 그들의 순수한 사회를 타락시켜 놓았다고 비판하였다.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이론은 언어 공동체나 집단의 보편적인 사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인간이 사회 규범을 수용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사회 구성원들 간에 맺어진 약속에 의해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쉽게 변화할 수 있다.
- ③ ㉠은 보편적인 속성을, ㉡은 구체적인 속성을 갖는다.
- ④ 모든 사람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이 개인의 언어 행위로 현실화된 것이 ㉠이다.
- ⑤ 소쉬르는 언어 활동의 본질은 ㉠에 있으므로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할 대상은 ㉡이 아닌 ㉠이라고 보았다.

2. ㉠가 소쉬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 ② 과일들을 가리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두 과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었다.
- ③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각 언어로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인식 체계가 달라진다.
- ④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시제 구분이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보다 현재를 더 중시하여 소비를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⑤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밖에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숫자와 관련된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데리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데리다는 기표들 간의 관계로 인해 기의가 정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표는 무수히 많으므로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의는 영원히 결정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기의가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들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변화되며 그 의미의 결정이 끊임없이 지연된다고 보았다. 한편 그는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이항 대립은 대등한 대립쌍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중심과 주변, 본질과 현상 등과 같은 위계가 무의식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위계질서를 해체하려고 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더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시민이 원주민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었다. 원주민들에게는 순수나 타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이러한 구분은 서구 인류학자의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그들의 사회가 순수하다거나 타락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① 데리다는 소쉬르와 달리 기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군.
- ② 데리다는 소쉬르와 달리 기표와 기의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군.
- ③ 데리다는 레비스트로스와 달리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순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군.
- ④ 데리다는 레비스트로스가 사용한 대립쌍들 안에 무의식적인 우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군.
- ⑤ 데리다는 문자로 인해 원주민들의 순수한 사회가 타락했다는 레비스트로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군.

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래 표는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두 부족의 친족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친족 관계 \ 부족	A	B
아버지와 아들	[     ]	[     ]
외삼촌과 조카	친밀함.	소원함.
남편과 아내	소원함.	[     ]
아내와 아내의 형제	[     ]	소원함.

- ① 부족 A와 달리 부족 B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할 것이다.
- ② 음운론에서 음소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집단의 친족 구조를 파악한 것이다.
- ③ 부족 A는 아내와 아내의 형제의 관계가 친밀하고, 부족 B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원할 것이다.
- ④ 부족 A와 B의 친족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해당 부족 내의 친족 사이에 가져야 할 표준적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된 것이다.
- ⑤ 부족 A와 부족 B에서 외삼촌과 조카의 친밀한 정도는 다르지만 이를 바탕으로 부족 A와 B 중 누가 더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19p)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 명확한 이유를 바탕으로 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사고에서는 주장과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주장은 다른 말로 ‘결론’, 이유는 다른 말로 ‘전제’, ‘논거’, ‘근거’라고도 부른다. 전제는 결론을 ‘지지한다’ 또는 ‘뒷받침한다’ 또는 ‘정당화한다’라고 말한다.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는 논증은 제시된 전제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참이라고, 또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논증에서 전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전제와 결론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문장의 위치로 전제와 결론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제는 한 개 이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물론 하나의 논증에 결론은 한 개다. 결론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논증은 실제로는 연쇄적이거나 독립적인 두 논증이 있는 것이다. 결론의 개수는 논증이 몇 개냐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중요한 반면 전제의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의 논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다. 논증을 펼친 이가 논증함으로써 무엇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의 이유로 어떤 내용들을 제시했는지 찾아내야 한다. 이 말은 곧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을 찾는 기계적인 방법[A]은 전제 또는 결론을 나타내 주는 담화 표지, 예를 들어 ‘왜냐하면 ~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므로’ 등을 찾는 것뿐이다. 그러나 전제나 결론을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전혀 쓰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논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 표지에 의존해서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기보다는 논증의 앞뒤 맥락을 살피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또한 전문 지식이나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복잡한 논증에서 담화 표지가 전혀 없다면 전제와 결론 찾기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때에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든,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논증을 만들어 낼 아무런 재료도 갖고 있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자신이 논증을 할 때뿐만 아니라 남의 논증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일상의 논증에서는 전제 또는 결론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너는 볼 수 없어.

위의 문장은 논증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너는 미성년자이다.’라는 전제가 하나 생략되어 있다. 그 전제는 대화 상황에서 논증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알고 있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논증을 이해하는 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략된 전제를 ‘숨은 전제’라고 부른다. 한편 굳이 결론을 진술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결론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소림사 출신은 모두 무예를 잘한다는데, 지산 스님도 소림사 출신이래.

이 논증이 ‘지산 스님은 무예를 잘한다.’라는 결론을 함축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제 일부와 결론이 전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 논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B]

전제 1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전제 2 나는 네 아들이 아니다.

결론 드래곤스 팀은 우승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숨은 전제와 숨은 결론을 재구성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논증의 주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특정 전제나 결론은 논증을 말하는 이나 논증을 듣는 이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때에는 흔히 생략된다. 그러나 좋은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전제나 결론이 아니라면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최대한 분명하게 밝혀 줘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증을 듣고 해석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숨은 전제와 숨은 결론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증의 종류를 소개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논리적 사고에 대해 정의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배경지식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논증의 구성 요소인 전제와 결론에 대해 언급하고 전제와 결론을 생략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논증의 개념을 소개하고 전제와 결론을 찾는 방법과, 전제나 결론이 생략되는 논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논증의 구성 요소인 전제와 결론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베리아에 사는 고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이번 겨울에도 날아올 것이다.
- ② 우리 반의 모든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다. 영미는 우리 반 학생이다. 그러므로 영미는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다.
- ③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 ④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 학생은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태경이도 5점의 가산점을 받을 것이다. 태경이는 가장 먼저 발표를 했다.
- ⑤ 대학 도서관의 증축은 마땅히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대학 교육은 그 나라 교육과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게다가 한 나라 대학 교육의 수준은 대학의 도서관 시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7. [A]를 바탕으로 <보기 1>을 읽고 <보기 2>에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어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심리학 이론은 틀림없이 거짓이다.

—<보기 2>—

ㄱ. <보기 1>의 논증은 담화 표지를 통해 결론을 찾아낼 수 있다.  
 ㄴ. <보기 1>에서 논증을 펼친 이의 주장은 '이 심리학 이론은 틀림없이 거짓이다.'이다.  
 ㄷ.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는 <보기 1>의 전제로 볼 수 없다.  
 ㄹ. <보기 1>에서 숨은 전제는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B]를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끼어들기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좋은 운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매일 학교에 지각하던 민영이가 내일 일찍 등교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다)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다.

- ① 학생 1: (가)의 숨은 전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는 좋은 운전법이 아니다.'이다.
- ② 학생 2: (나)의 숨은 전제는 '나는 손에 장을 지지 않는다.'이다.
- ③ 학생 3: (나)의 숨은 결론은 '민영이는 내일 일찍 등교하지 않을 것이다.'이다.
- ④ 학생 4: (다)의 숨은 전제는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다.'이다.
- ⑤ 학생 5: (다)의 숨은 결론은 '어리석은 사람이 올바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한다.'이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과 해설 21p)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는 일반적으로 전 주민을 일원적으로 통치하는 국왕이 거주하는 도시를 지칭하였다. 따라서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는 일국 내에서 행정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로 간주되었으며, 그 공간은 국가 권력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 주로 '경도(京都)'로 지칭되었던 조선 시대의 수도인 한양 역시 국왕이 거주하는 곳이면서 왕실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기구들을 갖추어야 하는 공간이자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드러내야 하는 당위가 중시되는 공간이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도성 건설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고려의 개경과 달리, 한양의 도성 건설 및 공간의 배치는 유교적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각종 제도의 원형이 담긴 것으로 간주되었던 『주례(周禮)』의 「고공기(考工記)」에 제시된 도성 계획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시하였다. 우선 도성의 중심에는 궁궐을 두어 국왕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상하 질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궁궐 앞으로는 곧게 뻗은 남북 축의 큰길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적으로 주요 건물들을 배치함으로써 궁궐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공간을 창출하려 하였다. 이는 하늘과 연결된 권력의 지상에 대한 일원적 지배를 상징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자,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도성 공간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질서를 지상에서 구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관아는 궁궐의 앞에, 시장은 궁궐의 뒤에 위치해야 한다는 면조후시(面朝後市)의 원칙이나, 궁궐의 왼편에 종묘, 오른편에 사직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좌조우사(左祖右社) 등이 『주례』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종묘와 사직은 수도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그 상징성을 드러내게 하는 제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시되었다. 태조는 즉위 교서 첫머리에서 고려 왕조의 종묘가 성 밖에 위치하여 『주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좌조우사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고려와 달리 도성 내에 종묘를 건설할 것임을 거론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을 따르는 것은 유교적 이념의 실천과 동일시되면서,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드러내고 이를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결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한양 도성의 공간 조성은 위와 같이 유교적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에의 순응을 중시하는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태조 때 정해진 한양의 도성 공간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明堂)의 형국을 지녔다. 한반도의 조종산(祖宗山)인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온 지맥이 조산(祖山)인 북한산을 거쳐 주산(主山)인 북악산으로 연결되었다. 주산의 왼쪽에는 좌청룡인 타락산\*이, 오른쪽에는 우백호인 인왕산이, 남쪽에는 안산(案山)인 목멱산\*이 위치하여, 이들 4개 산이 내사산(內四山)을 ㉠ 이루었다. 주산인 북악산을 배경으로

명당을 잡아 경복궁을 앉힌 결과, 군주가 거주하는 궁궐이 도성의 중심에서 벗어나 다소 북쪽에 치우쳐 위치하였다. 성내의 중간에 동서의 중심 가로(街路)를 내고, 이 가로 끝에 대문을 내었다. 남쪽으로는 안산인 목멱산의 맥과 우백호의 맥이 이어지는 결절점에 문을 내어 이를 남대문으로 한 다음, 남대문에서 동서의 주간선으로 역시 굽은 선을 그어 그 연결점에 종루를 세웠다. 육조와 한성부 등의 관아는 면조후시의 원칙에 따라 경복궁 앞에 배치하였다. 시장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궁궐의 북쪽에 위치해야 하나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궁궐 전면에서 동쪽으로 비껴간 종루 부근에 건설되어 도성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종묘와 사직의 위치는 좌조우사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각각 좌청룡과 우백호를 입지 근거로 삼아, 종묘와 사직을 궁궐 전면에 대칭으로 위치시킨 중국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중화주의적 질서를 의식하여 종묘와 사직을 제후국의 분수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따르면서도 세부 건설 과정에서는 중국에서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난 척도와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수도 한양이 봉건적 국제 질서 속에서 제후국의 수도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도와는 또 다른 중심으로서 독자적인 도덕성과 정당성을 지닌 장소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양 도성의 공간 조성은 유교적 이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공간의 자연 지형적 특징에 순응하는 유연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중국의 도성 건설 원칙을 수용하면서 도 자주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타락산, 목멱산: 각각 현재의 낙산과 남산을 가리키는 명칭.

9.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양의 내사산을 이루는 4개의 산
- ② 『주례』에 제시된 궁궐 건축의 과정
- ③ 조선 시대의 수도를 지칭하던 주된 명칭
- ④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가 지니는 공간적 특성
- ⑤ 『주례』의 원칙을 따르는 것에 대한 당대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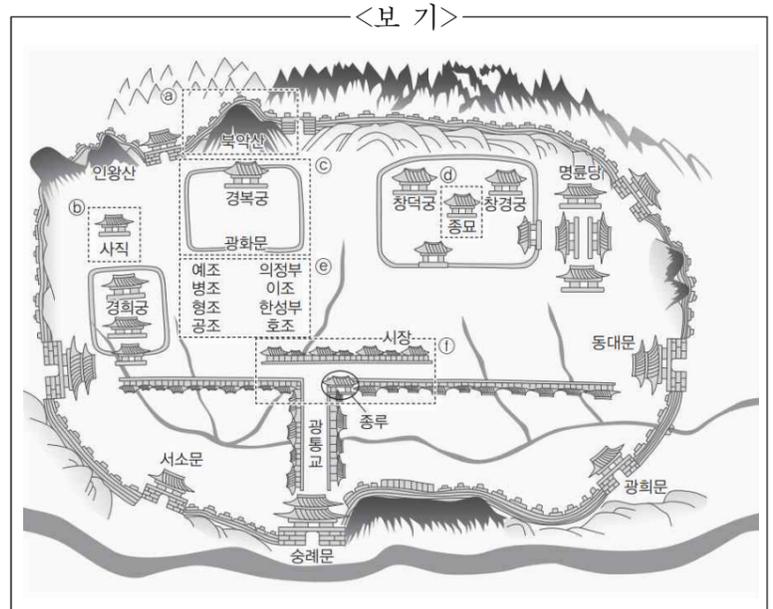
10. 한양 도성의 건설 과정에서 계획되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왕조의 도성 건설 원칙을 엄격히 계승하여 새 왕조의 도덕성을 부각한다.
- ② 도성 배치를 통해 국왕 중심의 엄격한 상하 질서를 드러낼 수 있음을 염두에 둔다.
- ③ 『주례』의 원칙을 지켜 유교적 이념의 구현을 지향하되 한양의 자연 지형을 고려한다.
- ④ 도로와 건물의 배치를 통해 새로운 권력이 하늘과 연결되는 정당성을 지님을 강조한다.
- ⑤ 남북 축의 큰길을 둔다는 원칙을 따르면서 구체적 위치 선정에는 풍수지리의 맥락을 반영한다.

11. ‘종묘’와 ‘사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조의 즉위 교서에서 그 위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 ②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잘 드러내는 제의 공간으로 중시되었다.
- ③ 위치 선정의 측면에서 고려 왕조 및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독자성을 지녔다.
- ④ 한양이 조선의 행정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로 결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제후국의 분수에 부합해야 한다는 당위를 따르면서도 자주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자리하였다.

12. 윗글과 관련지어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풍수지리에 의하면 ㉠에는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해 북한산을 거쳐 온 지맥이 연결되어 있다.
- ② ㉠을 배경으로 ㉡를 배치한 것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의 형국을 감안한 결과이다.
- ③ ㉢와 ㉣의 입지 선정에는 유교적 이념과 풍수지리적 관점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 ④ 『주례』의 도성 건설 원칙에 의하면 ㉡는 본래 ㉤에 위치해야 한다.
- ⑤ ㉤는 한양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의 ‘시장’은 『주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입지가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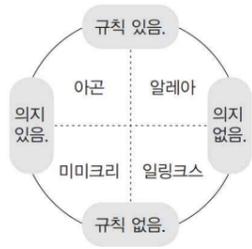
13.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잠 못 이루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 ② 그 가게는 개장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 ③ 그녀는 막내동생이 혼사를 이룬 것을 자랑했다.
- ④ 뜻한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한 그는 말을 멈추었다.
- ⑤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을 이루는 주어, 서술어 등이 있다.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과 해설 22p)

놀이는 자아 표현의 한 수단으로 자발적이며 즐거운 현실적 가상 경험의 몰입 활동이다. 최근 현대 사회는 여가 생활의 다양함으로 인해 놀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놀이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놀이를 학문적 대상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하위징아이다. 그는 놀이가 특정한 목적을 ㉠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놀이를 놀이 자체로 보고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카유아 역시 놀이를 그 자체로 보고, 하위징아가 분석한 놀이의 특성을 확장시켜 놀이를 분석하고 분류했다. 그는 규칙 유무와 의지 유무를 축으로 놀이를

㉠ ‘아곤(agon)’, ㉡ ‘알레아(alea)’, ㉢ ‘미미크리(mimicry)’, ㉣ ‘일링크스(ilinx)’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함으로써 현대 놀이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아곤’은 경쟁을 의미하는 말로, 사전에 설정된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상대와 경쟁하는 형태의 놀이를 가리킨다. 카유아는 ‘아곤’이 승리에 명확한 가치를 두고,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경쟁자들이 서로 싸우도록 기회의 평등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투쟁이라고 ㉡ 말하였는데, 여기서 기회의 평등은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바둑에서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얻은 집의 수에서 일정한 집의 수를 빼는 규칙을 마련하여 최대한 기회의 평등을 마련한다. 이러한 기회의 평등은 놀이 참가자에게 승리자가 패배자보다 ㉢ 뛰어남을 인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아곤’은 기회의 평등이 있고, 승리를 얻기 위한 놀이이기 때문에, 놀이 참가자들에게는 규칙에 대한 이해, 놀이 참가하기 등 놀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적절하고 부지런한 연습 및 노력과 그에 대한 인내,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알레아’는 운, 우연을 의미하는 말로, 규칙이 있으나 놀이 참가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운수나 요행, 운명에 결과를 맡기는 모든 놀이를 지칭한다. ‘알레아’에서는 상대방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운명이나 운과 같은 것이 문제이며, 놀이 참가자의 승리에 대한 의지나 그에 따른 능력 발휘는 놀이의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알레아’에서의 놀이 참가자는 ‘아곤’의 놀이 참가자와는 정반대의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 ‘알레아’의 참가자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대 심리에 바탕을 두고,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운에 기대어 놀이에 끊임없이 몰입하면서 막연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알레아’와 ‘아곤’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알레아’에서도 기회의 평등은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 ‘알레아’에서 기회의 평등은 위험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미미크리’란 흉내, 가장(假裝), 모방 표현의 뜻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가상 인물이 되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역할을 ㉣ 해내는 놀이다. 여기서 허구적 공간은 ‘아곤’과 ‘알레아’에서와 같은 강제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놀이

참가자는 놀이를 하는 동안만큼은 허구적 세계를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현실 속의 자아에서 벗어난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는 놀이를 통해 일상의 자아를 감추고 원래 인격, 욕망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미미크리’에서의 재미 원리는 놀이 참가자가 자신을 다른 인물로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가 내면에 숨겨진 자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내재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즐거움을 일으킨다는 것에 있다.

네 번째로 현기증을 의미하는 ‘일링크스’는 일정한 규칙을 상정하지 않으며,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놀이다. 의지 개입의 측면에서 ‘알레아’에서는 놀이의 결과에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것과 달리 ‘일링크스’는 놀이의 진행 과정에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 번지 점프와 같은 놀이가 대표적인 것으로, 놀이 참가자는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 쾌감 등의 심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평상시에 억제되어 있는 감각을 건드려 갑자기 사람을 사로잡는 황홀 상태로 ㉣ 이끄는 데, 이것은 관람하는 사람들 역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링크스’는 당사자의 일링크스와 목격자의 일링크스로 분류하기도 한다.

놀이의 네 가지 범주는 구체적 놀이 안에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서로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을 두 개씩 짝 지으면 이론상으로 6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카유아는 이들의 결합을 ‘있을 수 없는 조합’, ‘우발적인 조합’, ‘근원적인 조합’으로 나누었다. ‘아곤+일링크스’, ‘알레아+미미크리’는 결코 동반될 수 없다. ‘아곤+일링크스’의 경우는 일링크스에서 놀이 참가자가 경험하게 될 심리 상태가 아곤이 가지고 있는 놀이 규칙이 파괴된 상황, 즉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고, ‘알레아+미미크리’에서는 놀이 참가자가 운에 맡기는 그 순간에 ‘미미크리’에서와 같은 모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알레아+일링크스’, ‘아곤+미미크리’ 모두 놀이의 범주들끼리 즉흥적, 우발적으로 결합된다. 놀이 참가자는 ‘알레아’의 의도하지 않은 운을 통해 ‘일링크스’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아곤’에서의 의도적인 행위를 가상으로 해 보는 것은 ‘미미크리’적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알레아’와 ‘일링크스’의 의도적인 결합은 가장 강력한 몰입에 들게 하며 최고조의 정신적 긴장감을 맛보게 한다. ‘아곤+알레아’와 ‘미미크리+일링크스’의 조합은 각각 규칙의 유, 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조합에서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의지가 내포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조합에 포함된 범주끼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카유아는 이것을 ‘근원적인 조합’으로 보았다.

놀이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 범주 간의 결합을 통해서 놀이의 확장성을 보여 준 카유아의 견해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놀이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놀이인 온라인 게임을 카유아의 관점에서 보면, 왜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열광하는지를, 온라인 게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곤’에서 놀이 참가자는 경쟁자에게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놀이에 참여한다.
- ② 카유아는 놀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놀이를 연구했다.
- ③ ‘알레아’에서 놀이 참가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이기는 것이다.
- ④ ‘미미크리’에서 놀이 참가자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참가자들도 지켜야 할 질서를 만든다.
- ⑤ ‘일링크스’에서 놀이 참가자의 심리적 경험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감각의 자극을 통해 나타난다.

1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는 ㉢, ㉤와 달리 규칙이 존재하는 놀이이다.
- ② ㉡, ㉤는 ㉠, ㉢와 달리 놀이 참가자가 놀이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 ③ ㉠와 ㉡의 결합은 ㉢와 ㉤의 결합과 달리 놀이에서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한다.
- ④ ㉠와 ㉤의 동반, ㉡와 ㉢의 동반은 놀이 범주끼리의 이론적으로 가능한 결합이다.
- ⑤ ㉡, ㉤의 의도적 결합은 ㉠, ㉢의 의도적 결합보다 놀이 참가자를 놀이에 강하게 몰입시킬 수 있다.

1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같아야 한다.
- ② 위험 정도의 크기에 상관없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해야 한다.
- ③ 위험 정도가 클수록 놀이 참가자가 쉽게 지킬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해야 한다.
- ④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정도가 큰 것은 참여 횟수가 많고, 위험 정도가 작은 것은 참여 횟수가 적어야 한다.
- ⑤ 위험 정도가 큰 위험에서 얻게 되는 성공의 보상이 위험 정도가 작은 위험에서 얻게 되는 성공의 보상보다 커야 한다.

17.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요즘 온라인 게임 ○○○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게임의 참가자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며, 참가자의 레벨에 따라 주어지는 무기 아이템, 방어 도구 아이템, 기타 도구 아이템들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사용한다. 참가자는 자신의 캐릭터가 속할 나라를 선택한 후에 특정한 임무인 퀘스트 수행, 다른 캐릭터와의 싸움 또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하게 된다. 퀘스트나 전쟁, 싸움에는 등급이 있어서 참가자는 원하는 등급과 사용할 아이템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싸움에서는 상대방의 레벨 수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제한이 있다. 퀘스트의 성공, 싸움이나 전쟁에서의 승리가 있으면 성공 또는 승리의 결과에 따른 레벨 상승과 함께 보상 아이템을 받는다. 보상 아이템은 임의로 주어지지만 참가자의 레벨이 높을수록 전쟁과 싸움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

- ① 참가자가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 ‘미미크리’적 요소가 있는 게임임을 보여 준다.
- ② 보상 아이템이 임의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는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는 ‘일링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③ 싸움에서 상대방의 레벨 수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아이템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에는 ‘아곤’에서의 기회의 평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참가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참가자에게는 ‘아곤’의 참가자가 가져야 할 게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⑤ 참가자가 자신의 아이템을 선택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는 ‘미미크리’와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게임 참가자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게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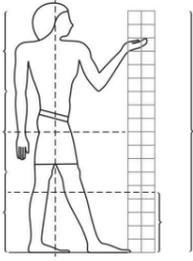
18.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달성(達成)하기
- ② ㉡: 설명(說明)하였는데
- ③ ㉢: 우월(優越)하다는
- ④ ㉣: 수행(遂行)하는
- ⑤ ㉤: 견인(牽引)하는데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과 해설 24p)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저승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들어가 사용할 육체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패하여 없어질 신체의 대용품 역할을 하는 조각상을 만들어 묘지 내부의 방에 ㉠ 세웠다. 그들은 내세에서 영원히 살아갈 이가 노년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청년의 모습으로 조각상을 만들었다. 죽은 이의 사실적인 모습이 아닌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조각상에 표현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만들어 낸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대체한다는 생각은 고대 이집트 미술 전반에 깔려 있다.

당시 사람들은 조각상이 묘사되는 실제 인물과 똑같이 생겨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조각가들은 미리 조각상을 만들어서 보관하였다. 구매자가 조각상 제작을 의뢰하면 조각가는 조각상에 주인의 이름과 칭호를 붙임으로써 조각상이 나타내는 대상을 지정하였다. 당시에는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비례 기준이 통용되었는데, 당시 조각가들은 이 비례 기준에 따라 조각상을 만들어야 했다. 그들은 <그림>과 같은 격자 도안을 고안하여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신체 각 부분의 비율이 정확하게 규정되었다.



<그림>

정사각형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조각상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각 신체 부분은 조각상 내에서 항상 일정한 비례를 갖게 되었다. 인물의 자세 또한 정형적이어서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였고, 서 있는 자세도 남성들은 걷는 모습, 여성은 발을 나란히 모은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대 이집트 조각상의 대다수는 석회암이나 화강암 등의 암석으로 만들어졌다. 목재는 암석보다 가공이 쉬워서 신체 형상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목재는 적은 양만 산출되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만이 목재를 사용하여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부조 역시 조각상처럼 실존 인물의 대체물로 간주하였다. 현대의 회화나 부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까이 있는 대상보다 작게 그리는 원근법이 사용되지만, 고대 이집트의 회화나 부조에서는 원근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상을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보다, 대상의 본질적인 부분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했다.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담은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면법이라고 ㉡ 부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정면법은 대상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해하고 각 부분의 본질적인 인상이 가장 잘 ㉢ 드러나도록 표현한 뒤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의 회화나 부조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 자주 등장한다. 가변적인 현실과 달리 내세는 불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닌 대상 그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풍경을 묘사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들은 연못은 위에서 본 모습으로, 연못 옆의 나무는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렸다. 이 때문에 어떤 예술 평론가는 ㉣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것을 그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부조를 만들 때도 격자 도안을 사용했는데, 밑바탕에 격자 도안을 먼저 깔고 인물의 전체 윤곽을 그린 뒤, 각 부분을 정면법에 따라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인물의 지위와 관계없이 인물들의 모습, 신체의 비례 등이 모두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좋은 옷, 장신구 등을 덧붙임으로써 인물의 지위가 높음을 드러내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조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왕과 왕족은 왕관이나 머리띠, 두건 등을 사용하여 신분을 표현하였고, 그 외의 백성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비례 기준을 건축에도 사용하였다. 전해 내려오는 고대 이집트의 설계도에는 방의 배열만 있을 뿐 축척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격자 도안을 이용하여 건축물 바닥에 실제 건축물과 같은 크기의 설계도를 ㉤ 새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에 석재층을 쌓을 때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건축물에 사용된 묘사가 실제 사물을 대체하거나 현실 또는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묘지에는 가짜 문이 많이 발견되는데, 벽에 새겨 만든 이 문은 실제 통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드나들기 위한 문이다. 또한 묘지나 신전의 입구 위에 사자나 뱀의 형상을 한 모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동물 모형이 묘지나 신전을 지켜 준다고 생각하였다. 묘지의 벽면에는 벽화들이 많이 그려졌는데, 이는 현세의 반영으로 여겨졌던 내세의 생활을 보여 준다. 그림들은 죽은 사람을 보호하고,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묘지 벽면에는 수많은 주문이 쓰였는데, 여기에는 죽은 이가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을 도우려는 의도가 ㉥ 담겨 있다. 신전 입구에는 거대한 사다리꼴 모양의 탑문인 파일론이 있었는데, 사악한 세력이 신전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였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이의 영혼이 묘지 내부에 세운 조각상에 들어간다고 여겼다.
- ② 고대 이집트의 조각가는 조각상의 독특한 자세를 통해 대상의 특징과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었다.
- ③ 고대 이집트의 회화에서는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까이 있는 대상보다 작게 표현하는 표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격자 도안을 사용한 고대 이집트의 조각들은 각각 크기가 다르더라도 조각상 내에서 일정한 신체 비율을 유지하였다.
- ⑤ 고대 이집트의 조각가는 의뢰한 인물의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이상적인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 ㉠의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여기는 것을 회화에 나타내려 하였다.
- ② 사실적인 회화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회화를 만들고 싶어 하였다.
- ③ 사람의 심성을 수양하는 데 회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감상자의 감성이 아닌 이성을 자극할 수 있는 회화가 훌륭한 회화라고 생각하였다.
- ⑤ 구매자가 의뢰한 대상의 외형적 특징을 잘 부각하는 것이 회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미술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A>
<B>

<A>는 고대 이집트 시기에 만들어진 묘실 문에 새겨진 부조로서, 정면법을 활용하여 눈과 어깨는 정면에서 본 모습으로, 코와 다리, 발은 측면에서 본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B>는 고대 이집트 시기에 만들어진 목재 조각상으로, 머리카락이나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하의만 입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 ① 당시에 풍경을 묘사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정면법이 <A>에 사용되었겠군.
- ② <A>는 부조이므로 조각상인 <B>와 달리 정확한 비례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겠군.
- ③ <A>에서 인물의 어깨는 정면으로, 발은 측면으로 나타낸 것은 미술품이 실제 대상을 대체한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겠군.
- ④ <B>가 목재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 조각상은 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B>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조각상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B>와 유사한 자세를 취하고 있겠군.

22. <보기>는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에 대한 소개 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고대 이집트에 지어진 이 묘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묘실의 한쪽 벽에는 마치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직사각형의 문 모양이 새겨져 있다. 그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인에게 제물을 바치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방 한편에는 수많은 주문이 쓰여 있다. 묘실의 입구에는 커다란 뱀 형상의 조각상들과 거대한 사다리꼴의 탑문이 서 있다.

- ① 이 건축물을 만들 때 각 층마다 바닥에 실제 크기와 같은 설계도를 그렸겠군.
- ②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그린 벽화는 내세의 생활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겠군.
- ③ 건축물에 쓰인 주문들은 내세에 대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군.
- ④ 사다리꼴의 탑문과 동물 형상의 조각상들은 방문자들이 문을 찾기 쉽게 돕는 역할을 하겠군.
- ⑤ 벽에 새겨져 있는 문 모양은 죽은 이의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의 기능을 하도록 만든 것이겠군.

23.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는 집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세웠다.
- ② ㉡: 어머니가 아이를 손짓하여 불렀다.
- ③ ㉢: 사건의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 ④ ㉣: 그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 ⑤ ㉤: 그의 말에는 단호한 뜻이 달겨 있었다.

[24~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과 해설 26p)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는 게 아니라 잡지에 기고하는 화가들이 있다. ‘개념 미술가’라 불리는 이들이 그들이다. ‘개념 미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헨리 플린트인데, 그는 개념 미술이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념 미술을 언어를 재료로 하는 미술 형식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개념 미술에서는 작품이 지닌 물질성이 중요하지 않다.

예술의 물질성에 대해 견해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헤겔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은 필연적으로 물질성에서 정신성으로 ㉠이행한다. 고대 오리엔트의 예술을 대표한 것은 피라미드나 �핑크스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기념비였다. 이때 정신은 아직 육중한 물질에 눌러 있었다. 이어서 등장한 그리스 예술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장르는 조각이었다. 헤겔은 예술의 본질이 정신적 이념을 감각적 물질로 구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는 정신과 물질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리스 조각에서 예술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이후 정신은 더 성장하여 서서히 물질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르네상스 예술을 주도한 장르는 회화였다. 회화는 개별 사물이나 표상에서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를 뽑아내는 정신적 과정을 통해 현실의 한 차원을 접어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조각보다 더 정신적이다. 또한 회화의 재료인 물감 역시 조각에 사용되는 육중한 돌에 비해 물질성이 한결 약하다. 17세기에는 음악이 예술을 ㉢주도하는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음악의 재료인 소리에겐 거의 물질성이 없다. 19세기 이후의 주도적 장르는 시였다. 이제 예술은 마침내 물질성을 완전히 벗고 학문과 똑같은 재료, 즉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다 자란 정신에게 예술의 물질성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옷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헤겔은 예술의 종언을 선언한다. 절대정신이 물질적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예술이 종언을 고했다는 그의 예언은 빗나갔을지 몰라도, 20세기 예술의 경향을 보건대, 적어도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승하리라는 ㉣그의 지적은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개념 미술가는 멜 보크너였다. 1966년 그는 동료 작가들의 드로잉과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를 여러 번 복사하여 네 권의 파일 노트에 끼워 조각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솔 르윗과 덴 플래빈의 작업 스케치, 그들의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송장\*, 존 케이지가 작곡한 악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파일의 첫 장은 화랑의 도면, 마지막 장은 복사기의 조립 도면이었다. 이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은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파일을 넘겨 가며 읽어야 했다. 이렇게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 작업 스케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송장 등이 예술이 될 때, 미술은 문학에 가까워진다.

솔 르윗에 따르면 개념 미술에서는 생각이나 관념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 예술가가 예술에 개념적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모든 계획과 결정이 미리 만들어지고 실행은 요식 행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솔 르윗은 그의 작품 ‘벽 드로잉’의 실행을 고용된 인부들에게 ㉤위탁했다. 그는 벽 드로잉을 제작하기 위한 지침을 고용된 인부들에게 주었을 뿐이다. 이렇듯 개념 미술에서는 시각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관념도 완성된 산물 못지않은 작품이다.

개념 미술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식을 선호한다. 첫째는 ‘레디메이드’로, 이를테면, 마르셀 뒤샹의 변기처럼 일상의 사물을 예술로 선언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입’으로, 오브제\*나 이미지를 엉뚱하거나 다른 맥락에 옮겨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니엘 뷔랑은 모든 곳을 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 줄무늬가 그려진 간판을 등에 짊어지고 파리의 거리를 ㉥활보했다. 셋째는 ‘자료화’이다. 자료화는 작품을 구성할 때 실제 작품이 모두 기록, 지도, 차트, 그리고 사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보크너의 작업 스케치 전시가 여기에 속한다. 넷째는 개념 미술의 가장 보편적 형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독일의 작가 한네 다르보벤은 숫자와 글자, 낙서를 계열적으로 늘어놓음으로써 회화가 글쓰기라는 관념을 표현했다.

한편 알렉산더 알베로는 개념 미술을 낳은 다양한 미술사적 계보학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의 개념 미술은 네 가지 궤도가 하나로 수렴한 결과이다. 첫째, 전통적 예술 작품의 구조를 해체한 모더니즘 회화의 자기반성적 경향, 둘째, 작품을 시각적 오브제에서 개념적 텍스트로 되돌리려는 환원주의적 경향, 셋째 뒤샹에게서 유래하는 반(反)미학 혹은 비(非)미학의 경향, 넷째는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소통되는 장소를 문제 삼는 경향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념 미술의 네 형식은 이 네 가지 궤도가 복잡하게 결합하여 나타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과 형식을 지닌 개념 미술은, 예술이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작품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언어를 비롯한 비물질성을 지닌 생각이나 관념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송장: 상품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송할 때 짐을 받을 사람에게 보내는 상품의 명세서.

\*오브제: 예술에서 작품에 쓴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 미술의 특성과 형식을 설명하고 이것이 지닌 의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② 개념 미술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개념 미술을 감상할 때의 주안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개념 미술의 역사를 소개하고 개념 미술의 다양한 미학적 특성과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 ④ 개념 미술의 재료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개념 미술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개념 미술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이유를 당대의 예술적 흐름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25.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을 바라보는 미학적 관점이 퇴보했기 때문이다.
- ② 예술 작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변했기 때문이다.
- ③ 예술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 ④ 예술 작품을 표현하기 위한 물질적인 재료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 ⑤ 생각이나 관념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되는 예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솔 르윗은 자신이 구상한 작품의 실행을 인부들에게 위탁했다.
- ② 멜 보크너는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읽게 함으로써 문학을 미술화하였다.
- ③ 헤겔은 정신성과 물질성이 적절하게 조화될 때 예술이 정점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 ④ 개념 미술의 경우에는 전시회에 가지 않고도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개념 미술의 네 가지 형식은 알렉산더 알베로가 언급한 미술사적 계보학이 결합하여 나타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이 작품은 개념 미술가인 일본의 작가 온 가와라의 작품입니다. 그는 매일 6~7시간에 걸쳐 캔버스에 그날의 날짜를 그려 넣고, 그 아래에 그날 벌어진 사건을 보도한 신문을 첨부했습니다. 그는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재료가 지닌 물질적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시간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한계 등 인간이 시간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온 가와라,  
<1973년 3월 14일 - 오늘 연작>(1973)

- ① 작품에 첨부된 신문은 오브제로서 작가는 개념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군.
- ② 작가는 캔버스 아래 신문을 첨부함으로써 일상의 사물을 예술로 선언하고 있군.
- ③ 작가는 작품을 통해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드러내려 했다고 볼 수 있군.
- ④ 작가가 작품에 그날의 날짜를 그려 넣기로 한 생각도 완성된 산물 못지않은 작품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작가는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작가가 직접 실행하는 작품만이 예술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 했군.

28.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C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짝 지은 것은?

—<보 기>—

개념 미술의 개념적 형식을 통해 개념 미술가들은 ( A ) 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비물질성을 지닌 생각이나 관념도 예술이라는 점을 통해 작품은 ( B ) 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으며, 감상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서 ‘보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읽는’ 방식도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습적인 ( C ) 의 관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 A  | B  | C  |
|---|----|----|----|
| ① | 지각 | 제작 | 형식 |
| ② | 제작 | 재료 | 감상 |
| ③ | 제작 | 이해 | 지각 |
| ④ | 전시 | 이해 | 감상 |
| ⑤ | 감상 | 재료 | 형식 |

2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옮아간다.
- ② ㉡: 다다랐다
- ③ ㉢: 이끄는
- ④ ㉣: 맡겼다.
- ⑤ ㉣: 헤맸다.

[30~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28p)

음악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 밝힌 수많은 동서양의 철학자들 가운데, 아도르노는 음악을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이자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대부분의 음악이 상품화되어 대중의 청취 능력이 퇴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음악은 비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음악의 진리성을 강조하면서 음악은 철저한 현실 비판과 부정의 상태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유토피아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진리성을 지닌 음악을 ㉡ ‘진지한 음악’으로, 그렇지 않은 음악을 ㉢ ‘가벼운 음악’으로 간주하고, 이들은 진리성의 유무뿐 아니라 사회와 관계를 맺는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진지한 음악은 소리, 조성, 리듬, 주제 등을 포괄하는 음악의 재료, 구조, 기술과 같은 음악 내적 형식을 사용하여 그 자체로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한다. 그러나 가벼운 음악의 경우 이러한 내적 형식 대신 음악 외적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을 통해 사회와 관계를 ㉣ 맺게 되며, 이는 결국 음악이 자본주의에 종속되어 그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는 전통적인 고전 음악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음악의 자율성을 강조한 ㉤ 쇤베르크의 음악을 진지한 음악의 사례로, 재즈를 포함한 대중음악을 위시하여 한때는 진지한 음악이었지만 문화 산업에 의해 영화 음악, 효과 음악, 광고 음악으로 상품화된 고전 음악을 가벼운 음악의 사례로 들어 자신의 구분을 구체화하였다.

아도르노는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피아니스트로서의 연주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음악의 내적 형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고, 또한 대중음악과 같은 가벼운 음악이 음악 외적 측면을 통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양상의 복잡성에도 주목하였다. 그는 이윤의 극대화를 주된 논리로 내세우는 문화 산업에서 대중음악이야말로 음악의 상품화를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예로 보고, 그 특징을 생산과 유통, 소비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생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중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표준화’로, 이는 곡 전체의 구성에서부터 세부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 미리 정해진 도식에 맞게 제작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작된 대중음악의 모든 세부 구성 요소들은 기계적으로 대체 가능하고 기계의 톱니처럼 기능할 뿐이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 사이에 긴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설정되기 어렵다. 한편 일탈을 자극하면서도 본래의 모습을 ㉥ 지키려는 대중음악의 역설적 요구는 자극을 원하면서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오곤 하는 대중의 심리적 욕구와 합치되면서, 개성적 표현마저도 획일화되는 대중음악의 사이비 개성화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특징인 ‘놀이 규칙 따르기’는 당대의 유행과 경향을 작곡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음악 작품의 고유성과 작곡가의 창조적 욕구를 사라지게 만든다.

유통의 차원에서 상품화와 관련된 대중음악의 특징으로는 ‘플러깅’과 ‘글래머’가 제시된다. 플러깅은 대중음악 소비자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을 말한다. 표준화로 인한 진정한 개별성 부족을 ㉦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즉 표준화의 불가피한 보완물로서의 플러깅은 동일한 것으로부터 일탈하려는 길을 막아 획일성에 대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다. 플러깅을 통해 대중의 청취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 채 표준화된다. 글래머는 대중에게 전달되는 감각적 인상이나 분위기, 또는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라 할 수 있으며, 본래 대중음악에 내재한 속성이 아니라 플러깅의 효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된다. 플러깅을 통해 청취자는 개별성이 결여된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 음악이 화려함, 당당함과 같은 매력, 즉 글래머를 지닌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음악 내적으로 결여된 개별성은 플러깅에 의해 음악 외적으로 부여된 글래머로 보완되고, 청취자는 이러한 글래머를 음악 자체의 성질 또는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청취자는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인데, 이를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듣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다.

또한 아도르노는 익숙한 레퍼토리로 채워진 공연 프로그램이나, 음악 공연의 예매를 사례로 들어 음악 소비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대중음악의 상품화를 비판하였다. 전자는 낯설고 실험적인 곡에 대한 적극적인 체험 대신 돈을 주고 익숙한 곡에 대한 경험을 소유한다는 만족감을 청취자에게 줄 뿐이라는 점에서, 후자는 ‘무엇’이 ‘어떻게’ 연주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연주된다는 사실’ 자체를 소유했다는 만족감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악의 상품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이런 특징들이 음악 청취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기반으로 이어지면서 문화 산업의 물신성\*을 더욱 ㉧ 굳건히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중음악에 대한 아도르노의 이와 같은 비판은 그가 쇤베르크나 베베른과 같은 유럽 작곡가들의 ‘신음악’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 편향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념적, 체계적 분석을 거쳐 대중음악에 대한 본격적 비평을 시도했다는 점이나, 음악 내적·구조적인 차원을 넘어 음악 외적인 요인까지도 대중음악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 있게 평가된다. 특히 아도르노가 비판한 당시 대중음악의 속성들이 8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대중음악에서 한층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논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물신성: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가 그가 소유한 물질과 물질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 또는 그렇게 보이는 사회 현상의 성격.

\*경도되다: 온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거나 열중하게 되다.

3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악의 효용을 설명하는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음악을 범주화하는 다양한 기준들과 이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③ 음악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 ④ 음악에 대한 상반된 두 이론을 설명한 후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음악의 유형을 분류하고 대상을 한정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 이론가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3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도르노’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악의 내적 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재료, 구조, 기술을 들 수 있다.
- ②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악의 상품화는 음악 청취 능력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 ③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이자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규정될 수 있다.
- ④ 대중음악의 유통 과정에서 플래깅은 음악 내적으로 결여된 글래머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⑤ 음악의 상품화가 촉진되는 상황에서 음악 작품의 고유성이나 작곡가의 창조적 욕구는 발휘되기 어렵다.

32.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포함되던 음악도 상품화의 여부에 따라 ㉡으로 규정될 수 있다.
- ② ㉠과 ㉡은 각각이 지닌 음악 내적 형식의 복잡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③ 음악을 둘러싼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은 ㉡과 달리 비판적으로 대응한다.
- ④ 자본주의로부터 자율적, 독립적으로 위치하는 ㉠과 달리 ㉡은 자본주의에 종속된다.
- ⑤ ㉠은 음악 자체에 내재한 속성을 통해 사회를 표현하지만, ㉡은 음악 외적, 경제적 측면을 통해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서양 음악의 역사에서 조성 체계는 음의 합리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인위적 체계로서, 오랫동안 당위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 쇤베르크는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구별 없이 사용하여 조성의 법칙에서 벗어나려 시도하였고, 이후 12음 기법을 통해 조성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였다. 19세기 말 바그너의 반음계주의에서 이미 한계가 노출된 조성 체계는 20세기 초 쇤베르크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 ① 바그너를 계승하면서 반음계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나갔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식을 존중한 음악이다.
- ② 내적 형식을 통해 조성 체계의 전통을 부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진리성을 지닌 음악이다.
- ③ 기존 조성 체계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 음악 외적인 측면과의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지닌 음악이다.
- ④ 12음 기법으로 상징되는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음악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음악이다.
- ⑤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구별 없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식과 새로운 형식 간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다.

34. 윗글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할 때,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 기>—

아도르노의 대중음악 분석은 2010년대 초중반에 방영되었던 인기 TV 프로그램인 ‘○○ ○○○’의 편곡 패턴 분석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탈락 시스템에 의해 경연이 진행되면서, 탈락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편곡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화가 나타났다. 이는 크게 1) 편곡 시 1절은 원곡을 살리고 2절부터 원곡을 좀 더 강렬한 비트나 댄스 풍으로 만들고 2) 곡의 마지막 부분에 가수의 모든 발성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게 ‘지르기 편곡’을 하며 3) 감정 라인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선율의 진폭을 넓히고 4) 공연 중 즉흥적 퍼포먼스가 가능하도록 원곡에 변형의 여지를 삽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의 편곡 패턴의 규격화는 실험적 공연 시도보다는 안정된 공연을 지향하는 가수의 규격화된 공연 패턴과도 논리적 궤를 같이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음원이 널리 판매되었고,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루어진 1980~90년대의 인기곡이 부활한 것은 물론 새로 창작, 발표되는 곡도 1980~90년대 히트곡의 유행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 ① 노래의 편곡 과정에서 1, 2절을 비롯하여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패턴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표준화’의 양상을 드러낸다.
- 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음원이 함께 판매되며 과거의 인기곡들이 부활하면서 대중음악 청취자들이 ‘플래깅’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임을 보여 준다.
- ③ 즉흥적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하는 변형의 여지를 사전 편곡 및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글래머’의 효과가 치밀하게 계산되는 것임을 암시한다.
- ④ 실험적 공연 시도보다는 안정된 공연을 지향하는 가수의 규격화된 공연 패턴은 소비의 차원에서 대중음악의 상품화 양상을 보여 주는 사례에 포함된다.
- ⑤ 2010년대에 발표되는 곡에서 20~30여 년 전의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발견되는 것은 TV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해 높이 규칙이 형성되고 이를 따르는 모습에 해당된다.

3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표명한
- ② ㉡: 형성하게
- ③ ㉢: 보강하려는
- ④ ㉣: 은폐하기
- ⑤ ㉣: 공고히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30p)

조선은 백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민본 정신을 추구하였으며, 통치자들의 존재 이유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는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이었다.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의무를 강조한 것과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고 규찰하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 것은 모두 이러한 민본 정신의 구현이었다. 또한, 조선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민의(民意), 즉 백성들의 생각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그중 하나가 백성들의 억울한 사안을 접수하여 해결해 주는 소원\* 제도였다.

조선의 소원 제도는 여러 절차를 통해 운영되었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민원인은 법에 규정된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고을의 수령에게 정소\*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위 기관으로 갈 수 있었다. 향촌의 백성들은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의송을 받은 관찰사는 이를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지 않고, 지방 수령에게 다시 이관시켜서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사건을 담당할 관리인 수명관을 지정하였는데, 수명관은 1차 단계의 수령일 수도 있었고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고을의 다른 수령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정소를 한 백성은 처분이 적힌 의송을 첨부하여 수명관에게 다시 정소하였고, 수명관은 그 결과를 상위 기관에 보고하였다. 이렇게 향촌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건을 중앙 기관인 사헌부에 고하였고,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단계로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소원의 절차는 성별과 신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었다.

소원의 마지막 단계인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신문고 제도가 있었다. 신문고는 송나라에서 처음 시행했던 제도로 조선은 이를 모방하여 대궐 밖에 큰 북을 매달아 두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북을 쳐서 왕이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의금부의 당직청에서는 북을 친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신문고는 호소의 내용과 절차, 접근성 등에서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먼저 내용 면에서는 종사\*와 관련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하고, 관리의 실정은 고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신문고를 울리기 전에 먼저 지방 관리에게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고 확인을 받는 정소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1년 이상이 걸리는 등 절차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또한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방 백성들은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문고의 사용 제한은 더욱 엄격해졌고 한양 지역의 양반들이 주로 이용할 뿐 백성들의 이용은 거의 없었다.

백성들이 억울한 사안을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다른 제도에는 ㉠ 상언과 ㉡ 격쟁이 있었다. 양반들이 왕에게 올리는

상소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상언과 격쟁은 주로 개인적인 사정을 소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상언은 백성이 왕에게 글을 올려서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규정에 따르면 상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왕의 행차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언별감에게 미리 작성한 글을 제출하였다. 승정원은 이를 왕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에 따라 담당 관청으로 이관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였다. 상언은 친제, 친정, 한내현신의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 친제는 상언 당사자가 직접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었고, 친정은 상언 당사자가 직접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내현신은 3일 이내에 상언 당사자가 관청으로 나가 친제와 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원칙들은 상언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의 원칙이라도 어길 경우에는 상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즉시 무효화되었다. 상언은 한문으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한문에 능숙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작성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상언은 주로 양반과 중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문자에 익숙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상언보다 격쟁을 더욱 선호하였다. 격쟁은 '징을 친다'라는 뜻으로 문자가 아닌 말로써 왕에게 호소하는 방식이었다. 백성들은 궁궐에 난입하거나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징이나 팽과리를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호소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격쟁을 사용한 백성들은 왕의 행차를 소란스럽게 했다는 죄목으로 잡혀가 먼저 처벌을 받은 후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말로써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서 절차적으로 간편하였기 때문에 하층민들이 선호하였다.

신문고와 상언, 격쟁은 민의를 직접적으로 왕에게 전달하는 제도였지만 관리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고, 일부 왕들에 의해서는 중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백성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소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관에 하소연함.

\*정소: 소장을 관청에 냄.

\*의송: 조선 시대에,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던 민원서류.

\*종사: 종묘와 사직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이르는 말.

3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들은 중단되었던 시기도 있었다.
- ② 관찰사가 의송을 받으면 사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관리를 항상 배제하였다.
- ③ 조선이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고 규찰하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했던 것은 민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 ④ 조선의 민본 정신에는 백성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백성을 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 ⑤ 조선에서는 성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규정된 제도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었다.

3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어사 제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은 백성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왕이 지역 사회에 관리를 직접 파견 하여 백성의 민심을 살피거나 특수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어사 제도를 운영하였다. 어사 제도는 수령의 행정 업무와는 별개로 운영한 기구이며 지역 사회에 파견된 어사는 관리 감찰, 민의 파악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어사는 공개적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고 비밀리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어사는 임무 후 ‘서계’와 ‘별단’을 정리하여 문서로 보고함으로써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왕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계’에는 지방 수령들의 통치 상황과 각종 비리를 적었고, ‘별단’에는 지역 백성들의 호소를 기록하였다.

- ① ‘서계’와 ‘별단’은 각각 상언, 상소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군.
- ② 백성들이 어사에게 호소한 억울한 사연은 문서의 형태로 왕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상언과 유사하군.
- ③ 백성들은 파견된 어사를 통해 여러 단계의 복잡한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겠군.
- ④ 어사 제도는 신문고 제도와는 달리 관리들의 실정을 고발할 수 있었으므로 감사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군.
- ⑤ 어사 제도는 백성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고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통치 이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38. 신문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원의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제도이다.
- ② 신문고를 통해 억울한 사연이 접수되면 왕은 수명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안을 해결하게 하였다.
- ③ 백성이 대궐 밖에 있는 북을 치면 왕은 직접 나가서 해당 백성을 만나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였다.
- ④ 신문고를 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백성이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에게 정소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 ⑤ 백성들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절차적 과정이 간소화되거나 호소의 내용이 처음보다 확대되었다.

39.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왕의 행차가 전제되어야 하였다.
- ② ㉠은 사건 당사자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③ ㉡은 절차적으로 간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층민들이 선호하였다.
- ④ ㉡을 실행하는 백성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 ⑤ ㉠과 ㉡은 모두 백성들이 주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 상황을 비판하고 제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제도였다.

[40~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과 해설 31p)

상식적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외부 세계의 대상을 지각할 수 있을 뿐, 대상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버클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 기관의 지각을 통해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관념뿐이라 보았다.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만으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제한된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관념 중 어떤 것이 대상의 실재와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각 경험을 통해 지각된 관념에 국한된다는 것이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이다.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에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 마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단지 우리 마음속 ‘관념들의 집합’일 뿐이다. 그는 ‘존재하는 것’이란 곧 ‘지각되는 것’이며,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보고,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상식적 실재론자들의 입장을 비판했다. 버클리는 지각의 조건 또는 지각하는 주체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상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부정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대상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고 관념이 곧 존재라고 보는 버클리의 입장에 대해 상식적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그의 주장처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관념의 묶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이 환각일 수 있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버클리는 지각된 어떤 것이 환각 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 경험들이 반복되는 유형인 족(族)을 이루는지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가령 ‘나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감각 경험들의 한 유형을 지닌다. 우리는 나무를 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 그 형태나 크기를 달리 지각할 수 있으나, 나무에 대한 시각적 경험과 촉각적 경험은 일련의 체계성을 갖는다. 나무에 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감각 경험의 조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이에 반해 감각 경험의 질서 있는 연속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 환각은 감각 경험들이 족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의 존재가 입증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감각 경험과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인 것이다.

둘째, 대상에 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이 독립적 대상을 표상하지 않으며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내가 바로 앞에서 나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나무에 대한 감각 경험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유형을 유지하는 것은 나무라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 버클리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끌어들였다. 버클리에 따르면 마음, 곧 정신은 관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관념 자체는 지각되어 마음속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동성을 지니는 데 반해, 마음은 외부 대상을 지각하여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 버클리는 대상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했지만, 지각하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정신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버클리의 입장에서 마음은 다른 외부 세계의 대상들과 달리, ㉡ ‘지각됨’으로 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 ‘지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으로, 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지각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 신은 ‘지각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은 무한한 정신인 신이 항상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영원히 깨어 있어 모든 것을 지각하는 신이 ㉣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지각하지 않아도 세계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외부 세계가 모든 것을 지각하는 신에 의해 운영되며, 자연법칙이라 불리는 체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버클리는 신의 존재를 설정함으로써 신의 지각에 의해 대상이 계속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결국 외부 세계는 신에 의해서 그 존재가 보증되는 셈이다. 버클리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신이 가진 힘의 징표”이다. 이렇게 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우리의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념론자들이 상식적 실재론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상식적 실재론에 대한 여러 인물의 견해를 제시하고, 각각의 견해가 지닌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관념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들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 ④ 상식적 실재론에 대한 특정 인물의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의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감각 경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고찰하고, 각각의 입장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분석하고 있다.

4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버클리’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신만이 가질 수 있다.
- ② 감각 기관으로는 대상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없다.
- ③ 외부 세계의 대상은 감각 경험의 조건에 따라 달리 지각될 수 있다.
- ④ 인간이 인식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된 관념들의 집합이다.
- ⑤ 인간의 마음이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외부 세계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4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철학자 1: 나는 ‘도(道)’가 절대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도’는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물이란 사람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구분된 것이라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외적 대상도 우리와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우리 마음에 의해 달리 간주될 수 있을 뿐이라네. 다만 ‘현재의 도’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이라면, ‘미래의 도’는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네.

철학자 2: 외부 세계는 과거의 세계인 ‘나’와 가능 세계인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은 ‘나’의 마음이 ‘타자’의 마음과 조우한 결과이다. ‘나’가 경험을 통해 지각하지 못한 부분은 ‘타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경험이 합쳐질 때, 신에 의존하지 않아도 대상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달성될 수 있다. ‘나’와 ‘타자’가 서로 마주칠 때, ‘나’와 ‘타자’의 인식은 각기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독립적 대상의 존재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 ① ‘철학자 1’과 버클리는 외부 세계의 대상들이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군.
- ② ‘철학자 1’은 ‘현재의 도’가 이미 만들어진 대상이라는 점에서 상식적 실재론자들이 말한 독립적 대상처럼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보겠군.
- ③ ‘철학자 2’와 버클리는 다른 존재 없이 ‘나’의 경험을 통한 지각만으로는 외부 세계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겠군.
- ④ ‘철학자 2’는 버클리가 말한 무한한 정신의 존재를 설정하지 않고도 내가 ‘경험을 통해 지각 하지 못한 부분’이 ‘타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⑤ ‘철학자 2’는 ‘과거의 세계’와 ‘가능 세계’가 인간의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식적 실재론자들이 생각한 독립적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겠군.

43.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각은 지각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 실재가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 ② 환각은 감각 경험의 조건이 변화하더라도 달리 지각될 수 없기 때문에
- ③ 환각은 신의 존재를 설정해도 우리에게 지각될 수 없는 관념이기 때문에
- ④ 환각에서는 감각 경험으로 형성된 관념과 실재와의 관계가 규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 ⑤ 환각에서는 감각 경험이 일관되지 않고 그 변화의 폭도 가늠할 수 없어 체계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44. ‘버클리’의 입장을 고려할 때,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존재가 인식된 대상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는 없다.
- ② ㉡에 의해 외부 세계의 대상에 대한 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
- ③ ㉡을 통하지 않아야 외부 세계의 존재가 입증될 수 있다.
- ④ ㉠과 ㉡은 감각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이 전제되어야 ㉠이 이루어질 수 있다.

45. 밑줄 친 말이 ㉢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그는 집에 있겠다고 했다.
- ② 세상에는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 ③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 연휴이다.
- ④ 오늘 회의가 있으니, 모두 참석합시다.
- ⑤ 거처를 옮기지 말고 서울에 계속 있어라.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33p)

19세기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니체가 말한 삶은 생생하게 작동하는 현실의 삶이다. 그는 '인간의 삶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철학, 윤리, 종교 등은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철학은 진리를 내세워 개념의 껍질에 인간을 가두어 버리고, 윤리는 당위를 통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현실의 삶을 포장하며, 종교는 인간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 너머의 문제에 집착하게 한다. 그는 이러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오직 미학, 즉 예술을 통해서만 인간의 삶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니체 초기 미학의 핵심 주제인 '예술가-형이상학'이다.

니체는 '예술가-형이상학'과 관련하여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면서도 근원적인 예술 충동으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제시했다. ㉠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 질서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형상과 형태를 만들고 기준이나 틀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충동에 의해 인간은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되게 만들어 주는 '개별화의 원리'를 사용하여 구분 가능하고 산정 가능하며 인식 가능한 조형 세계를 만들어 낸다. 그는 이와 같이 만들어져 아폴론적인 것을 '꿈'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여기서 꿈은 현실의 어려움을 버티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생겨나는 마음의 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예술가가 꿈을 지니고 있어 완전한 세계를 지향하는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아폴론적인 예술 충동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는 조형 예술인 조각이나 회화를 들 수 있다. ㉡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은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 안에서 무매개적으로 솟구치며 어떤 형태나 경계를 만들지 않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지향하는 것이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도취'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도취는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개체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에 의해 인간은 세계의 근원적 모습과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도취는 개별화의 원리를 붕괴시킨다. 그에 따르면 비조형적 예술인 음악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그는 두 충동을 대립적인 것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그는 두 충동이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것에도 주목해 아폴론적인 것이 없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성립될 수 없고, 디오니소스적인 것 없이는 아폴론적인 것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아폴론적인 것에 비해 영원하고 근원적인 예술의 힘을 발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음악의 비조형적인 특징에 주목했다. 형상화를 의도하지 않는 비조형성은 결과적으로 시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가 중시한 음악의 미학적 가치는 이를 바탕으로 출발한다. 그는 음악이 그 자체로 내적 구조와 논리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음악의 내적 구조와 논리는 다양한 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며, 음들 사이의 차이가 갖는 관계를 역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역동성을 현실 세계에서 '삶의 의지로서의 의지'인 생명력이 발현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에게 음악은 현실 세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예술의 힘으로 이해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음악에 비해 회화는 예술적 근본 충동의 또 다른 한편이라고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이고 개별적이면서 조형성을 갖는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미학적 가치를 많이 부여받지는 못했다. 회화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형성이 선과 윤곽, 색채와 배열 등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회화의 특징들은 대상의 표면적 속성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대상의 근원적인 속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니체는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의 대립적 속성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 개별화의 원리에 충실하여 개체 세계, 즉 인간 개인의 삶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아폴론적 예술 충동에 의한 꿈의 세계를 통해 아름다운 환상을 경험함으로써 인간 개인이 삶에서 겪는 고통을 이겨 낼 수 있다. 아폴론적 예술 충동을 통한 척도와 비율의 존재, 즉 조형적인 힘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은 개별화의 원리를 파괴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삶을 구원하는 기능을 한다. 개별화의 원리가 깨질 때 인간은 공포감과 황홀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에 도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니체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이 변증법적으로 합쳐진 예술 장르를 '비극'으로 보았다. 비극에서 배우가 느끼는 디오니소스적 경험은 아폴론적 환상인 객관화된 장면으로 나타나고, 관객은 배우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에 따르면 비극은 두 대립적인 예술 충동이 통일된 상태, 즉 디오니소스적 도취감 안에서 아폴론적 형상이 표현된 것이다.

니체의 '예술가-형이상학'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는 인간이 아폴론적인 것으로만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만 살아갈 수도 없다고 보았다. 아무리 아폴론적인 질서에 따른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고 자신해도 어느 순간 디오니소스적 무질서에 따른 욕망 가득한 삶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예술가-형이상학'은 ㉢ 니체의 중·후기 미학에서는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다. 삶을 예술로 설명하는 '예술가-형이상학'에서 예술은 삶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수단이 되는데, 초기 미학에서와 달리 그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정당성을 지니고 있어 더 이상의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삶은 어떤 수단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삶과 유리된 예술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고 예술 그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예술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4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니체의 초기 미학 이론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열거하고 있다.
- ② 두 가지 예술 충동에 따라 나타나는 예술 세계의 양상을 구분하고, 각각의 예술 세계가 변화한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간의 삶과 관련된 두 가지 예술 충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니체의 중·후기 미학 이론이 갖는 한계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④ 두 가지 예술 충동에 대한 니체의 미학 이론과 다른 학자의 미학 이론을 대비하여 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전개된 니체의 초기 미학 이론을 두 가지 예술 충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중·후기 미학 이론의 관점을 덧붙이고 있다.

47. 윗글을 읽고 **니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기 미학에서 ‘예술가-형이상학’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 ② 음악이 그 자체로 내적 구조와 논리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 ③ 회화의 선, 색채 등은 대상의 표면적 속성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역동성을 ‘삶의 의지로서의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여겼다.
- ⑤ 비극에서 배우가 느끼는 아폴론적 환상을 통해 관객은 배우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한다고 보았다.

4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구분 가능하고 산정 가능하며 인식 가능한 조형 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② ㉡은 인간 안에서 무매개적으로 솟구치는 것이다.
- ③ ㉠은 ㉡에 비해 영원하고 근원적인 예술의 힘으로 나타난다.
- ④ ㉡은 ㉠과 달리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개체가 하나로 융합되는 도취를 통해 설명된다.
- ⑤ ㉠과 ㉡은 모두 인간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4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칸딘스키는 회화가 음악과 동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두 예술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들을 바탕으로 두 예술을 결합시키고자 했다. 이에 그는 회화의 음악성을 추구했다. 그가 회화에 음악을 접목시키고자 한 까닭은, 음악은 회화에 비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도 대상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술의 진정한 미적 가치는 정신적 세계의 반영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정신적 세계가 내적 필연성에 근거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내적 필연성은 대상으로부터 느낀 내면적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는 내적 필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내적 필연성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적 필연성을 표현하는 형태가 추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추상이란, 구체적 그림의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과 형태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회화의 음악성을 추구함으로써 회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외적 자연 현상의 재현 또는 단순한 모방에서 순수 회화적 수단인 추상으로 전환시켰다.

- ① 칸딘스키가 내적 필연성의 표현을 중시한 것은, 니체의 관점에서 예술을 통해 대상의 근원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에 주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칸딘스키가 회화의 음악성을 추구한 것은, 니체의 관점에서 시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의 속성에 미학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칸딘스키가 회화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순수 회화적 수단인 추상으로 전환시킨 것은, 니체의 관점에서 아폴론적 예술 충동에 의해 규정된 기준이나 틀을 깬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칸딘스키가 예술의 진정한 미적 가치가 정신적 세계의 반영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으로 본 것은, 니체의 관점에서 회화의 현상적이고 개별적인 조형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칸딘스키가 회화와 음악이 동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니체의 관점에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50. 윗글의 ㉠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고, 욕망은 절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욕망으로부터의 결핍과 불만을 느껴 고통을 겪는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을 통해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간이 예술에 의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잠시일 뿐 영원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예술을 ‘진정제’와 같다고 보았다.

- ① 예술을 통해 인간은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 너머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② 비극은 인간을 도취된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불만과 결핍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한다.
- ③ 인간은 예술이 아니더라도 아폴론적인 질서에 따른 절제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욕망 가득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④ 예술은 그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인간을 삶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⑤ 인간은 개별화의 원리에 충실한 꿈의 세계를 통해 아름다운 환상을 경험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35p)

현대 미술은 20세기 초의 입체주의를 시발점으로 한다. 입체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내려고 한 기존의 미술적 경향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펼쳐 보였다. 그 새로움이란 작가의 정신을 투영하여 대상을 주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입체주의는 여러 방향에서 본 대상의 모습을 한 화폭 안에 표현하려는 노력을 통해 2차원의 평면 위에 3차원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입체주의의 이러한 시도는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을, 시각성보다는 정신성을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을 주도했다고 평가된다. 현대 예술의 옹호자이자 입체주의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아폴리네르는 입체주의를 '진실임 직함'과 '눈의 즐거움'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예술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술가의 창작 행위 자체가 예술의 본질이라는 인식하에 입체주의를 칭송한 바 있다.

특히 아폴리네르는 프랑스의 입체주의 화가인 로베르 들로네의 시도에 주목하였다. 아폴리네르는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주의, 즉 형태를 해체하고 이를 재조립함으로써 대상을 표현하는 '과학적 입체주의'와 들로네의 입체주의를 구별했다. 들로네가 형태의 해체는 물론이고 색채의 분할을 통해 입체주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피카소와 차별점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아폴리네르는 과학적 입체주의에서 사라져 버린 다채로운 색채를 부활시켜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입체주의를 구현해 낸 들로네의 미술 경향을 '오르피즘'이라고 명명하였다. '오르피즘'이란 오르페우스적 입체주의라는 뜻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음악가인 오르페우스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아폴리네르는 들로네의 작품이 영혼을 울리는 오르페우스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색채를 역동적으로, 리듬감 있게 구사해 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아폴리네르는 ㉠ 들로네의 작품에 현대 미술을 위한 모든 노력이 집약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들로네를 순수 조형 요소를 통해 서정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작가로 칭송하였다. 특히 그는 들로네가 입체주의의 동시주의적 특성을 형태를 넘어 색채에까지 적용하였다는 데 주목하였다. 여기서 동시주의적 특성이란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한 대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단일한 이미지에 녹여 내는 것을 가리킨다. 동시주의적 특성은 동시적 분할과 병치를 통해 드러난다. 3차원 대상의 각 면들을 2차원의 평면에 옮기기 위해서는 인지된 그 면들을 떼어 내고 재단하고 붙여 내어 화폭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관념을 통해 해체한 대상의 이미지들을 2차원의 평면에 병치시키는 행위, 그것이 바로 동시적 분할과 병치이다. 아폴리네르에 따르면, 동시적 분할과 병치는 과학적 입체주의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지만 들로네의 작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들로네의 작품은 백광이 프리즘을 통해 분할되는 것처럼 색채를 분할하여 연속적인 파노라마로 배치함으로써 다채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음악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폴리네르는 이러한 동시적 구성은 일상적 경험과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드라마틱한 구조를 띠고 있으므로 '초구성(superstructure)'을 지닌 양식이라고 규정하며, 들로네의 작품에서는 초구성을 통한 예술의 순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폴리네르의 칭송을 받은 들로네는 슈브뤼엘의 색채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오르피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화학자인 슈브뤼엘은 그의 이론에서 색채는 상호 관계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명도가 비슷한 인접 색상을 동시에 배색하면 조화로우미 더해지고 보색 대비를 통해서도 생동감 있고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색채는 이웃한 색채들과 관계 맺으며 광선의 감각과 움직임, 공간의 깊이와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 요소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색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오르피즘 역시 입체주의의 한 분파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들로네의 에펠탑 연작은 색채의 관계를 통해 구성된 오르피즘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철탑인 에펠탑은 지어졌을 당시에 파리 경치를 해치는 흉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들로네는 에펠탑을 기계 시대의 에너지가 집약된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에펠탑이 현대 미술에도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밑에서 올려다보는 시점,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점 등 열 가지가 넘는 시점을 통해 에펠탑을 묘사하였는데, 빛을 통해 다채롭게 구현되는 에펠탑의 예술성을 역동적이고 리듬감 있게 표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들로네의 오르피즘은 독일의 청기사파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청기사파의 일원이었던 칸딘스키가 들로네를 청기사파에 합류시켜 함께 활동하였다. 칸딘스키는 대상이나 실재는 없지만 깊은 울림과 정신적 감동을 주는 음악이야말로 현대 회화의 답이라 생각하며 음악을 닮은 회화를 그리기 위해 연구하였다. 그러면서 칸딘스키는 들로네와 함께 색채가 주는 긴장감과 정서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들로네는 색채의 지각에 관심을 보이면서 색채가 바로 주제라고 주장한 반면, 칸딘스키는 색채 하나하나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색채의 힘과 원리로 화면을 구성하고자 한 들로네의 시도는 현대의 추상 회화로 귀결되었다. 들로네가 칸딘스키와 함께 추상 회화의 초석을 놓은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51.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상 회화의 기초를 다지는 데 영향을 준 작가로 누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 ② 입체주의가 기존의 미술적 경향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 ③ 3차원 대상을 2차원의 평면에 옮길 때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 ④ 어떠한 요소에 주목했는지에 따라 입체주의를 구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⑤ 칸딘스키가 대상의 형태를 해체하고 색채를 분할하기 위해 시도한 여러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52.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들로네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을 통해 색채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② 아폴리네르는 예술가가 새로운 예술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
- ③ 들로네는 칸딘스키가 속해 있는 독일의 청기사파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다.
- ④ 에펠탑은 지어졌을 당시에 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⑤ 슈브윈은 보색 대비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고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53. 윗글을 통해 ㉠의 이유를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포착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술가의 위상을 높였으므로
- ②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해 낼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였으므로
- ③ 대상의 형태가 아닌 색채를 통해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 ④ 대상이 지니고 있는 가치나 의의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고 대상의 형태에만 주목하게 하였으므로
- ⑤ 대상의 형태를 해체했을 뿐만 아니라 색채를 분할하여 조립함으로써 예술의 순수성을 드러냈으므로

54. <보기>의 선생님의 말에 따라 윗글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미술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미술 용어를 바탕으로 여러 미술 경향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도 있고 관련성을 엿볼 수도 있지요. 여기 몇 가지 미술 용어가 있는데 이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윗글의 내용을 폭넓게 이해해 볼까요?

- 모노크롬: 단일한 색조를 명도와 채도에만 변화를 주어 그린 단색화.
- 데페이즈망: 전치, 전위. 어떤 물체를 본래의 위치에서 떼어 내는 것.
- 포름: 형태, 색채, 형식 등을 두루 일컫음. 대상의 시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감각적 요소.
- 슈파농: 긴장, 점, 선, 색채 등 회화적 구성 요소들의 상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감.
- 데포르마시옹: 변형, 왜곡이라는 뜻. 대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변형하고 왜곡하는 기법. 형태와 비례 등을 왜곡하는 시도를 통해 창조성을 드러내는 데 활용됨.

- ① 아폴리네르는 오르피즘 작품이 모노크롬에 비해 감상자에게 서정적 감흥을 더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 ② 들로네가 대상의 이미지들을 해체하여 캔버스 위에 병치하는 과정에서 데페이즈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 ③ 들로네는 대상의 색채라는 포름을 분할한 뒤 이를 새롭게 병치함으로써 입체주의의 동시주의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요.
- ④ 칸딘스키는 색채를 통해서도 슈파농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색채에 부여된 의미를 통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 ⑤ 피카소는 입체주의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데포르마시옹을 적용하여 3차원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2차원의 평면 위에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5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들로네의 <동시에 열린 창들> (1912)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삼각형과 사각형 등이 다양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들로네는 이 작품에 대해 파리의 개신교 꼭대기에서 에펠탑을 바라보고 에펠탑과 그 주위의 건물의 창에서 햇빛이 반사되는 풍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도시의 창마다 햇빛이 반사되어 수많은 유리창이 서로에게 프리즘이 되어 풍성한 빛과 색을 보여 주는 장면을 밝은색과 어두운색,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 선명한 색과 흐릿한 색 등을 활용하여 울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들로네는 이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주관성을 통해 에펠탑과 주변 풍광의 색채를 동시적으로 분할하여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겠군.
- ② 들로네는 이 작품을 통해 감상자들이 에펠탑과 그 주변 풍경을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라는 회화의 순수한 조형적 특성에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이겠군.
- ③ 들로네는 이 작품을 창작할 때 보색을 활용하여 에펠탑과 주변 풍광을 대조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사용된 색채 하나하나에 부여된 정신적 의미를 부각하려고 하였겠군.
- ④ 아폴리네르는 이 작품이 에펠탑을 실제로 본 경험이나 에펠탑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초구성을 지닌 작품이라고 말하겠군.
- ⑤ 아폴리네르는 이 작품이 형태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둔 작품이 아니라 색채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에펠탑과 그 주변 모습을 리듬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겠군.

[56~6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36p)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의 종전 이후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자본주의가 발달하였고, 자연 과학, 법학 등 실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학문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형이상학적 철학 이론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프래그머티즘은 당시의 미국 사회를 지배하며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프래그머티즘은 행동, 실행, 실제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프라그마’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철학 이론이다.

프래그머티즘의 출발점은 다윈의 진화론이었다. 다윈은 자연 안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부정하며, 이 세계는 불확실한 우연성이 지배한다고 하였다. 인간 역시 우연적인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변의 법칙이나 신의 섭리를 탐구하는 일에 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서구 사회의 전통적인 기독교적 인간관 및 플라톤 이래의 형이상학적 인간관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프래그머티즘은 지식이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영원불변의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며, 세상의 문제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이 주장한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은 있을 수 없으며 실천의 결과를 바탕으로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이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나타나는 프래그머티즘의 특성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프래그머티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퍼스는 의미론으로서의 프래그머티즘을 주장하였다. 퍼스가 몰두한 것은 탐구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가 말하는 탐구는 현실 생활에 나타난 회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행동이다. 퍼스는 탐구는 의심에서 시작되며, 과학적 방법을 거쳐 확고한 믿음에 도달하여 의심이 그칠 때 그 믿음의 진리 여부와 관계없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행동 방식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은 행동의 규칙이나 마음의 습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퍼스는 개념의 의미는 믿음의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그 개념이 지니고 있는 실제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프래그머티즘의 격률’을 이야기하였으며, 어떠한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결과를 얻어야 하고 그 결과가 대상에 대한 개념의 전체라고 하였다.

윌리엄 제임스는 퍼스가 언급한 프래그머티즘의 격률을 대상의 개념적 의미를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적인 기준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래그머티즘의 진리론으로 발전시켰다. 퍼스는 믿음을 확립하기만 하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제임스는 관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 그것이 실생활에서 어떤 실천적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어떤 관념의 진위는 그 자체로 결정될 수 없고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유용한 결과로 검증된다면 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는 이를 ‘현금 가치’라고 표현하였는데, 예를 들면 “바늘 위에서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삶을 개선하는 데 전혀 유용하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현금 가치가 없는 지식에 해당한다. 두 가지 관념을 비교해서 진리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어떤 관념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즉 구체적 결과가 있어야 의미를 지니게 되고 따라서 진리로 여겨지던 추상적인 관념들은 구체적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이 된다.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진리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때에만 비로소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임스는 진리를 무엇인가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경험과 낱은 진리가 서로 결합하고 수정된 결과다. 이는 제임스가 진리를 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나타낸다.

프래그머티즘은 존 듀이의 도구주의에 의해서 행동적 요소가 더욱 강조되었다. 듀이는 퍼스의 주장을 논리화하여 탐구의 논리로 체계화하였는데, 듀이는 사람들의 모든 관념은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듀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유기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서만 상호 관계가 가능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고 작용이 일어난다. 듀이는 이때 일어나는 사고 작용은 지적인 요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의 기능이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탐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탐구는 문제 상황, 즉 불확정한 상황을 확정된 상황으로 바꾸는 것으로 여기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나오는 것이 관념이다. 따라서 관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의 기능을 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관념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구주의에서 진리는 단순히 참된 지식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보증된 주장 가능성’을 뜻한다. 이것은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얻은 지식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듀이는 이러한 탐구의 방법론을 철학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정치, 예술 등에 적용하며 프래그머티즘을 통한 사회 개선을 시도하였다.

㉠ 전통적인 철학자들과는 달리 ㉡ 프래그머티즘 학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추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식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생활 중심의 철학을 추구하였다. 물론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고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진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 본질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프래그머티즘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프래그머티즘이 발생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프래그머티즘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를 대조하고 각각의 입장이 지닌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프래그머티즘의 주장을 설명하고 프래그머티즘에 대한 반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 ④ 프래그머티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이론을 소개하고 여러 학자의 견해를 통해 프래그머티즘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프래그머티즘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57. [A]를 통해 알 수 있는 프래그머티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은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인간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영원불변한 지식을 실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④ 인간은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절대적이지 않고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 ⑤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인간이 우연적인 진화의 산물이라는 특성 때문이므로 이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58. ‘퍼스’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단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힘을 받아도 쉽게 그 모양이 변하거나 부서지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이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다이아몬드는 다른 물질과 비교했을 때 쉽게 모양이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는, 경도가 가장 강한 물질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 ①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라는 문장의 의미에 의문이 생긴다면 새로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한 탐구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군.
- ② 실험의 결과가 문장의 의미와 다르게 나온다면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라는 문장은 확고한 의미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겠군.
- ③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은 어떠한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실험의 결과를 알아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군.
- ④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라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다이아몬드의 경도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물질과 비교하는 등의 실험이 필요하겠군.

⑤ 과학적 방법을 거쳐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라는 문장의 개념적 의미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진리에 기반을 둔 믿음에 도달해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군.

59.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진리를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은 이 세계는 불확실한 우연성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를 중요시했다.
- ③ ㉡은 형이상학적 철학의 주장에 근거하여 진리를 실용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 ④ ㉡은 진리가 불변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⑤ ㉡은 진리가 실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개념의 절대적인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6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공 지능,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사람의 역할로 여겨졌던 의료 분야에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기술을 활용하면 더 정확한 의료적 판단과 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컴퓨터 회사에서는 인공 지능 의사를 발명하여 질병 진단, 유전 정보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에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수술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점차 그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 ① 프래그머티즘 학자들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의료 행위에 대해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겠군.
- ② 퍼스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결과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하겠군.
- ③ 제임스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의료 행위에 찬성한다면 기술의 활용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 가치’를 더 높이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④ 듀이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의료 행위에 찬성한다면 기술의 개발 및 적용 시도가 순수한 지적 요구나 호기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⑤ 듀이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의료 행위에 찬성한다면 이를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간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61.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어제 친구와 영화를 보았다.
- ② 그는 상대를 항상 만만하게 보았다.
- ③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
- ④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절한 기회를 보았다.
- ⑤ 드디어 1년 동안 해 오던 작업의 끝을 보았다.







수능특강 독서 2부 인문·예술 정답					
01 구조주의 언어학과 인류학					
④	②	②	③		
02 숨어 있는 전제와 결론					
④	④	④	⑤		
03 한양 도성의 공간 조성					
②	①	④	⑤	⑤	
04 카유아의 놀이에 대한 이론					
①	③	⑤	②	⑤	
05 고대 이집트 예술과 건축					
②	①	③	④	⑤	
06 개념 미술					
①	⑤	②	⑤	②	⑤
07 아도르노의 음악론과 대중음악 비판					
⑤	④	②	②	③	③
08 조선의 소원 제도					
②	①	④	⑤		
09 버클리의 관념론					
④	①	②	⑤	③	②
10 니체의 예술 철학					
⑤	⑤	③	④	④	
11 오르피즘과 들로네					
⑤	①	⑤	④	③	
12 프래그머티즘					
④	④	⑤	①	④	②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